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제관 : (808) 422-1040
- 사무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ukcc@gmail.com](mailto:honoluluukcc@gmail.com)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80호

2025년 12월 21일(가해)

미사 안내	평 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주 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연령회		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김미아 헬레나 (808) 291-7811		



## 오늘의 미사

## 대림 제4주일

- ▶ 1독서 : 이사야서 7,10-14
- ▶ 화답송 :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 2독서 : 로마서 1,1-7

-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보아라, 동정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
- ▶ 복음 : 마태 1,18-24

성가

▶ 입당: 96

▶ 봉헌: 212, 213

▶ 성체: 176

▶ 파견: 91

- ① 1월 1일 첫 목요일은 성체 강복 없습니다.
- ② 1월 18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③ 1월 18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 ④ 1월 봉성체 안내

1월 봉성체는 1월 15일(목, 오전) 서쪽 지역, 1월 16일(금, 오후)  
동쪽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 ⑤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1월 18일~24일)
- ⑥ 매월 넷째 주 1월 25일(일) ‘한끼 나눔’
- ⑦ 미사 참석시 명찰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⑧ 12월 24일 성탄 전야 미사 – 저녁 7시 (현금, 구유예물)  
12월 25일 성탄 대축일 낮 미사 – 오전 10시 30분 (현금)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 오전 10시 30분 (현금)



사목공지



## ※ 교육분과 공지

## 교리교육 주제

- 12월 21일: 18과 치유성사,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 12월 28일 & 1월 4일: 휴강

시간: 오전 9시, 장소: 예비자 교리실

교리에 관심 있는 신자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 ① 하와이카이 구역 모임

일시: 12월 21일(일) 오후 6시  
문의: 김글라라 349-2654

## ② 연령회 모임

일시: 12월 21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 ③ 펠시티&amp;아이에아 구역 모임

일시: 12월 21일(일) 오후 5시  
문의: 김사비나 721-1055

## ④ 알라모아나 구역 모임

일시: 12월 27일(토) 오후 6시  
문의: 김엠마 228-0088

## ⑤ 꾸리아 월례 모임

일시: 12월 28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 ⑥ 사목회 모임

일시: 1월 4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리실

## ⑦ 성령기도회 모임

일시: 1월 4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 ※ 2025년도 교무금 납부 안내

2025년을 마무리하며, 올해 교무금을 아직 완납하지 않으신 신자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교무금을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신자분들께서는 2026년도 교무금 카드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 ■ 故 한순애 할바라 자매님께서 11/18일 향년 95세로 선종하셨습니다.

장례미사: 12월 23일(화) 10시 30분, 성당  
연도: 9시 30분

## ※ 주일학교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홍윤택 프란치스코, 이성환 그레고리오



1월 24/25일 Church in Latin America and Black & Indian Missions을 위한 2차 현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12월 13/14일 : \$7,839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304명
	주일현금	교무금	2차현금	특별현금		
	\$3,276	\$2,655	\$1,368	\$540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 808-798-5100

## ※ 미사: 미사 해설

### 시작 예식(2) 제대 인사와 십자성호에 대해서

미사 시작 예식 : 입당(입당성가/제대 인사) – 성호경 – 인사 – 참회 – 자비송 – 대영광송 – 본기도

두 번째, 입당 예식에 포함된 “사제의 제대 인사” 부분입니다. 사제는 제단에 올라, 허리를 굽혀 제대에 입을 맞추거나 깊은 절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제대”는 미사의 중심 장소로서 성찬 전례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들어 올려지시고, 무덤에 묻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미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제가 제대에 인사하는 이유는 미사의 제정자이며 대제관이신 주님께 가장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 또한 사제에게만 맡겨진 행위가 아닌 공동체를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서 제대에 예를 표하는 것이므로, 우리 또한 사제의 이 행위에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입맞춤, 무릎 절 등의 인사를 깊은 절로 대신하기로 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아둡시다

세 번째로 십자성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사 전례에 참여하면서 처음과 끝에 하는 행동은 “십자성호”입니다. 십자성호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임을 드러내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십자성호는 축복의 표시로서 2세기경부터 자신과 이웃, 또는 물건을 축복하는데 사용되었으며,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사를 시작하며 바치는 십자성호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행위는 13세기부터 미사를 시작하면서 “십자성호”를 그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세례 때를 기억하며 세례와 성체성사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며, 나아가 하느님은 한 분이시나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지니신다는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십자성호를 사제와 함께 표현함으로써 참석한 이들이 미사에 초대되었으며, 서로 간에 그리스도를 통한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미사 전례가 시작될 때 자랑스럽게 큰 목소리와 큰 행동으로 하는 십자성호는 준성사에 준하는 가치를 지녔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짧지만, 가장 중요한 이 십자성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갈라 6,14 참조)”의 말씀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는 신앙고백이기도 합니다.

즉, 시작 예식 중 십자성호는 하느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거룩한 만찬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 대림 제4주일 강론 요약본

대림 시기는 단순히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결코 편안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과 갈등 한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제1독서와 복음은 바로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제1독서의 아하즈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위협 앞에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그에게 표징을 청하라고 하시지만, 아하즈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며 이를 거절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느님보다 자신의 계산과 정치적 판단을 더 신뢰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삶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 하며 하느님의 초대를 외면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아하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표징을 주십니다. “젊은 여인이 임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다.” 이 표징은 군사적 힘이나 정치적 해결이 아닌, 연약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구원을 드러냅니다. 임마누엘, 곧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 함께하시겠다는 하느님의 결단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전히 실현되며, 하느님의 구원이 우리의 기대와 계산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복음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하느님의 방식에 응답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임신 사실 앞에서 요셉은 큰 혼란과 두려움을 겪지만, 그녀를 배려하며 조용히 떠나려 합니다. 그때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성경은 그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행동했다고 간결하게 전하며, 그의 믿음이 얼마나 단순하고 깊은 순종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하즈와 요셉은 모두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선택은 달랐습니다. 아하즈는 자신의 판단을 따랐고, 요셉은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이 대비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불안 속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따르고 있는가?

대림 시기는 아직 오지 않은 하느님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하즈가 아니라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에 조용히 응답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 그것이 대림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다림입니다.

권지훈 베드로 신부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광고 문의
사무실 808-422-1010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렬 사무실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죄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